

강O규 F/49 OOOOOOOO

local 치과에서 implant 시술을 앞두고 이전 약물 부작용에 대한 further evaluation 위하여 내원한 49세 여자 환자 입니다.

약물 부작용 episode는 2004년 본원 산부인과에서 mucinous cystadenoma로 난소 절제술을 받고 경구 항생제를 복용 후 몇 시간 뒤에 어지럽고 양손이 떨리는 증상이 항생제를 복용하는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약을 먹고 피부 발진이나 설사 구토는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자료라 어떤 항생제를 복용한지는 알 수 없어 내일 아침에 차트 보관한 곳에 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감기에 걸리면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은 적은 있지만 항생제나 진통제를 처방 받아 복용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 환자 산부인과 항생제/진통소염제 처방내역

- 6월 2일 수술당일: cefotetan 1g, amikacin 250mg, ketorolac,
- 6월 3일 POD1: cefotetan, amikacin,
- 6월 4일: cefotetan, amikacin
- 6월 5일: cefotetan, amikacin
- 6월 7일: cefditoren (meiact)

⇒ 선생님이 말한 history가 맞다면, 환자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예방적 항생제 또는 수술 후 주사 항생제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럼 주사 항생제 맞을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먹는 항생제를 사용한 후에 증상이 생겼다는 말이죠?

치과에서 implant시술 할 때 Amoxicillin, ibuprofen을 처방 받을 예정입니다. 위 두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evaluation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병력으로는 어릴 때부터 비염이 있었고 치료는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비염 증상으로는 코막힘, 가려움증, 목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상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결막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음식성 알레르기 경험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2004년 mucinous cystadenoma로 난소 절제술 받았습니다.

⇒ 과거병력을 기술할때 비염이 있다는 진단을 먼저 내리는게 아닙니다. '상기 환자는 과거력 상 코막힘, 코가려움증, 목 뒤로 코가 넘어가는 증상이 있었고, 냄새를 잘 못 맡는다고 하였습니다. 상기 증상은 1년중 언제 언제 심했으며...'로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천식도 그냥 진단명을 기술하기 보다는 숨이 차면서 쌉쌉거리거나, 밤에 숨이 차서 잠에서 깬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기술하는게 더 적절합니다.

술 담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에는 약물부작용, 비염 history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내원 당시 몸에 열 등의 이상 소견 없었으며 신체검사 소견상 눈 주위 allergic shiner, 코 주위 nasal crease 관찰되지 않았고 목 뒤로 가래가 넘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청진 상 wheezing이나 crackle 없이 양쪽 폐에서 breath sound 대칭적으로 잘 들렸습니다. Dermographism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당일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Ig E수치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 이 검사결과는 현재 약물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을 case 발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일 시행한 X-ray Waters view에서 Maxillary sinus에 부비동염이 관찰되었고, Chest X-ray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였습니다.

⇒ 부비동염이 관찰되었다고 말하는 건 선생님이 진단을 내린 거예요. 선생님은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PNS에서 관찰된 finding을 말해야 합니다.

상기 환자를 정리하면

1) 11년 전 난소 절제술을 받고 복용한 항생제에서 어지럽고 떨리는 증상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전형적인 drug allergy 증상인 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 흥반성 발진등은 관찰 되지 않았습니다.

2)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몇 시간 뒤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delayed allergic reaction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는 시술 전 평가 위해 내원한 것으로 Drug allergy에 관한 진단 및 사용 가능한 약 판단 위해 4일 후 외래 재방문 하기로 하였으며 Amoxicillin과 ibuprofen에 대한 유발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 case에서 제일 중요한 부부는, 김미경 교수님도 상기 환자의 약물 부작용 증상을 '어지럽고 떨림'으로 알고 계신지 여부인것 같네요. 만약 어지럽고 떨림만 있고 다른 피부증상이 없었다면 약물 알레르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외래에서 환자가 했던 comment를 기억하고 rash, urticaria 등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 김미경 교수님 외래 경과를 보면 ibuprofen에 대해서는 유발검사를 할 예정이고, amoxicillin에 대해서는 우선 IgE 결과를 확인하실 예정인것 같아요. Cephalosporine-specific IgE 검사의 sensitivity는 30~74.3% 그리고 specificity는 83.3%-100% 정도 된다고 하네요.